

충청매일 > 지역 > 충남

충남 천안시기자협회, 배 인공수분 봉사활동 참여

한만태 기자 | 입력 2023.04.10 14:05 수정 2023.04.10 14:11 댓글 0

🔗 🖨

한국 농어촌공사(천안지사)와 성환읍 배 과수농가 찾아 일손돕기 진행



천안시기자협회 회원들이 배 인공수분 봉사활동 참여하고 있다.

[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충남 천안시기자협회(충청매일 등 14개 언론사)(회장 최형순, 이하 천기협)와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이규병)는 10일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배 인공수분(화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천기협 회원들과 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 꽃 개화 시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환읍 배 과수농가를 찾아 4년째 화접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오피니언

칼럼 [활쏘기 문화 산책]전통 사법의 심법 5

사설 [사설]인구절벽, 해결은 직접적인 이 최고다

칼럼 [오창근의 뒷담화]이태원 참사 1주년,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1 정원진 천안시 성환읍장 '2023 조선일보 춘천 마라

2 충북 청주서 열린 2023 대 한민국 막걸리 & 못난이

3 충북 제천 아파트 신축 현장서 40대 근로자 감전

4 홍대 레드로드서 라트비아 축제 [LATVIA DAYS in

5 [홍석원의 세상이야기]친한 친구의 죽음



천안시기자협회에서 (충청매일) 배 인공수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있다.

천안시 성환지역 배 농가들은 한 해 배 수확을 결정짓는 시기지만 일손 부족으로 화접을 못해 드론 등을 이용해 분사형식의 인공수분을 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이마저도 실패확율이 높아 농민들은 2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과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천기협과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임직원들은 배꽃 마다 정성을 들여 인공수정 작업의 일손을 보탰다.

최형순 회장은 "최근 일 손이 턱없이 부족한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화접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규병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은 "올해에도 천기협과 화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앞으로도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ESG(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경영활동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기협은 복면 구산원 후원, 청룡동 위기가구 연탄 등 후원, 대정저수지 정화 활동과 배 화접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청룡동 22개 사회복지 기관과 mou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활동과 재능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충청매일 CCD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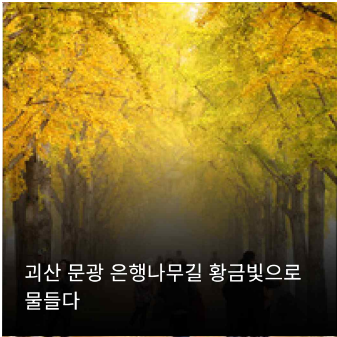


한만태 기자 hmt6656@ccdn.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당신만 안 본 뉴스

- 괴산 문광 은행나무길 황금빛으로 물들다
- 신임 충북경찰청장 후보자 김병우·정상진 치안감
- 청주 택시 사용기간 '1년 연장' 조레안 발의
- 청주 울랑동 상가 건물서 화재
- 대전 뽕축제 서대전 공원에서 28일 개막
- 터널 추돌사고로 4명 숨지고 달리던 시외버서서 화재
-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하반기 전문적 학습공동체 배움자리 개최



괴산 문광 은행나무길 황금빛으로 물들다

0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셔야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0 BEST댓글

주요기사



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충북 단양군 관광명소 발굴을 위한 사진과 영상 작품 모집



충북 제천시 신백동,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전개



제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문화활동 전개



대전 서구, 평생학습도시 재지정...2026년까지 역할



제천시, 열린 어린이집 총 13개소 선정

